



프로판발전特委, 김형익 위원장 선출

**위원도 교체...총원 2명 줄고 5명 신임
용기관리비용·재검기간 등 현안 논의**



프로판발전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대거 교체되고 동방도시가스산업 김형익 사장이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LPG충전사업자들로 구성된 프로판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LP가스공업협회(회장 유수륜)에서 회의를 갖고 최근 프로판업계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프로판발전특위 위원들이 대거 교체됐는데 기존에 위원장을 맡고 있던 유수륜 흥천가스상사 대표가 지난해부터 본회의 회장직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김형익 동방도시가스산업 사장이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중도가스 민명준 사장, 세운가스 송만배 사장, 영진에너지 조병관 사장, 인천LPG충전소 황인연 사장 등이 새로운 위원으로 선출됐으며 기존 17명이던 총 위원수는 15명으로 2명 줄었다.

특히 이날 모인 관계자들은 충전업계의 골칫거리로 꼽히고 있는 용기관리비 문제, 밸브재사용, 용기재검기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형익 위원장은 “프로판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용기관리비용 절감 등 충전업계의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프로판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2002년 프로판의 수요정체를 비롯해 가격경쟁력 회복 등 업계현안을 헤쳐 나가기 위해 충전사업자들로 구성된 기구이다. [한국가스신문 3-16]